

치문현토와 번역의 연관성 연구*

이성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수료

서언: 번역과 현토

I. 조사와 어미

II. 범주와 분절

III. 형식과 비유

결어: 전승과 극복

*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요약문

이 글은, 어순구조가 다른 한문에 '다는 토'[懸吐]가 불전 번역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불전 번역의 방법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불전(佛典) 가운데 불교의 신참 승려들이 학습하는 치문경훈의 제 번역을 대상으로 삼아 '범주와 분절', '형식과 비유'를 중심으로 현토와 번역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장은 저본인 치문경훈과 간경도감 간행본에 나타나는 현토(懸吐) 조사나 활용어미를 제시하였다. II 장은 현토가 동사의 지배 범주, 주술어의 호응, 통사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폈는데, 여러 본이 선행의 현토를 그대로 수용하여 의미와 동사의 지배범위[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II 장은 대구(對句)와 비유의 문체 등이 현토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폈는데, 원문의 문체 미도 찾기 어렵고, 후치수식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현토는 한문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장점을 안고 있지만 그것을 사

용함으로 인한 번역의 장애 요인이 적지 않았다. 선대의 업적인 현토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현토가 있는 원문을 참고할 때는 현토를 삭제한 후 (백문) 문장을 분석하여 대구와 후치(後置) 수식(修飾)이 잘 드러나는 표점(標點)을 한 후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언해, 현토, 조사, 활용어미, 음운변화, 범주, 비유

서언: 번역과 현토

외국어와 문자로 적힌 문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익혀온 모어가 아닌 한, 경중은 있을지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¹⁾ 우리와 문법이 확연히 다른 한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 시가를 적기 위한 향찰,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훨씬 이후까지 쓰였던 우리식 문법이 혼용된 이두, 한문 문장을 우리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보조 자료인 현토를 개발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한문 불전을 받아들인 불교계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한문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이다. 그 결과 현전하는 향가의 집성자, 찬자와 내용 등이 불교와 깊은 관련이

1) 2008년 2월 25일 새로이 정부를 출범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영어몰입 교육을 제시하였고 완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접었지만 이후 암암리에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보인다.

있다. 또 현전하는 현토(구결)자료²⁾의 태반은 불전이며, 특히 우리 어순 식으로 해석하며 읽도록 고안된 ‘자토석독구결’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화엄경소』권제35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문 불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무엇일까. 한문의 본고장 중국이 구두를 찍었다면 교착어인 우리나라는 한문 원전에 ‘토를 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확인하고 정음으로 번역하는³⁾ 것이었음을 전하는 언해서들의 기사는 번역에서 현토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불전의 번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결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

구결(口訣)이란 ‘입꺾’ 또는 ‘입꺾’의 한자 차용 표기다. 이것은 흔히 ‘ㅈ’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들은 모두 15세기의 「세종실록(世宗實錄)」 및 초기의 언해본(諺解本)들에 나타난다. 구결(현토)이란 한문을 읽을 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구결(현토)이 이두와 다른 점은 ㄹ(爲), ㄴ(是), ㄱ(古), ㄷ(尼), ㄱ(也) 등 한자의 약체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구결(현토)의 약체 가운데에는 일본문자(片假名)와 같은 모습의 것들이

2) 본고에서는 현토의 ‘토’는 ‘구결’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口訣 또는 ㅈ는”(安秉禧,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1977, p. 11.); “口訣이란 ‘입꺾’ 또는 ‘입꺾’의 한자 차용 표기다. 이것은 흔히 ‘ㅈ’라고”(李基文·張素媛 共著, 『國語史』,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4, p. 37.) 하는 입장에 따라 ‘토’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 토’와 구결을 크게 구별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김무봉, 「언해본 금강경과 한글번역」, 『〈금강경〉 한글본 편찬, 어떻게 할 것인가?』(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7), p. 15.

있고, 또한 그 성격도 같아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구결은 신라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조와 조선조의 기록에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三國史記」(卷46)에 설총이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方言으로 九經을 읽어 後生을 訓導하였다.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이를 존송한다)라 한 것을 보면 그가 구결의 발달에 공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⁴⁾ 신라시대 자료가 많지 않아 후대의 자료에서 그때의 모습을 추측해왔는데 최근 『화엄문의요결문답』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한 논의는 신라시대 구결의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전하는 구결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구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음독구결(音讀口訣)이요, 또 하나는 석독구결(釋讀口訣)이다. 음독구결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문원문을 읽을 때 우리말 문법요소(주로 조사, 어미 등)를 끼워 넣어 읽는 것을 말한다.⁵⁾ 음독구결은 소곡본 능엄경, 남권회본 능엄경 등 현전 자료로만 보아도 13세기 정도에는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독구결은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의 구결인데, 이 구결에 따라 원문을 읽으면 한문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물론 이 구결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고 나면 한문원문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점에서는 음독구결과 같다. 앞에서 말한 이두는 문법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을 경우 한문 원문이 그대로 회복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이두와 구결의 차이점이기도 하다.⁶⁾

4) 李基文·張素媛 共著, 『國語史』(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p. 37.

5) 위의 책, p. 37.

6) 李基文·張素媛 共著, 『國語史』(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pp. 37-38.

석독구결 자료로는 균여의 『석화엄교분기원통초』, 『화엄경소』권제35, 『화엄경』권제14, 『유가사지론』권제20, 『합부금광명경』권제3과 1973년 문수사(文殊寺, 충청남도 서산군)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물(腹藏物) 속에서 발견된 「舊譯仁王經上」의 낱장(5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 자료이다. 조선시대의 몇몇 구결자료에서 발견된다. 고려시대 자료로 알려진 이 「舊譯仁王經上」은 한문의 양옆에(횡서의 좌우측) 구결을 달아 우측 목격어 구결을 먼저 읽고, 좌측 서술어 구결을 읽는 것으로, 한문을 우리말 어순처럼 읽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의 발견으로 「三國史記」에서 설총이 방언(方言, 국어)으로 9경(九經)을 읽었다고 한 말의 참뜻을 알게 된 것이다.⁷⁾

이 글은 한문 불전 번역과 현토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번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번역 방법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불가에 입문한 신참 승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치문경훈이며, 주요 번역본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몇 본에 한정했다.

I 장은 현토문의 조사나 활용어미와 번역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와 활용어미는 음운변화를 제하고는 중세본과 현대본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간경도감 간행본의 예도 들 것이다.

II 장은 현토가 동사의 지배 범주, 주술어의 호응 및 통사구조에 어

7) 李基文·張素媛 共著, 『國語史』(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pp. 37-38.; 김완진·정광·장소원 공저, 『국어학사』(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p. 98.

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Ⅲ장은 시와 부의 대구와 같은 문체가 현토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결론으로 현토를 어떻게 전승하면 좋은 것인가와 번역에 미친 현토의 영향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예문은 초판 간행연도 순서로 원문, 현토문, 번역문을 제시한다.

I. 조사와 어미

1. 격과 조사

전통적 의미의 격이란 굴절에 의하여 실현될 때 쓰인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격은 격조사 등에 의해서 실현된다. 또 격과 관련하는 조사가 쓰인다. 체언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격조사와 형태상 종류에 따라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통합된 단어에 의미를 덧붙여 줌으로써 말의 뜻을 정밀하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 보조사가 있다. 불전에 쓰이고 있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살펴보자.

1) 격조사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대격(목적격)조사, 속격 혹은 관형격조사, 처격조사, 구격조사, 공동격조사, 호격조사가 있다.

주격조사: 선행체언의 조건에 따라 세 가지로 실현된다.

체언어간의 말이 자음일 때는 ‘-이’로 실현된다.

世尊의 四衆이 圍遶하스와 (法華經一, 53a)

체언어간의 말이 모음일 때는 ‘-(y)’로 실현돼 그 모음과 결합하여 하향이중모음을 형성한다.

체언의 말이 모음 ‘이’(i)나 하향 이중모음인 ‘ㅣ’(y)로 끝날 때는 주격조사가 ‘零’(ø: zero)이나 주어 말음의 성조에 따라 성조의 변화를 가져온다.⁸⁾ 실제 예를 보자.

(1-1) 夫兩桂ㅣ垂蔭에 一華ㅣ現瑞하니⁹⁾

(1-2) 夫兩桂ㅣ垂蔭에 一華ㅣ現瑞하니

대저 兩桂가 蔭을 垂하매 一華가 瑞를 現하니¹⁰⁾

(1-3) 夫兩桂二垂蔭에 一華二現瑞하니

두 계수나무가 그늘을 드리움에 한 꽃이 상서를 나타니¹¹⁾

(1-4) 대저 두 계수나무간 그늘을 드리움에 한 개의 꽃송이간 상서를 시현하니,¹²⁾

(1-5) 夫兩桂垂蔭에 一華現瑞하니

무릇 두 그루의 계수나무간 그늘을 드리움에, 한송이의 꽃인 상스러움을 드러내니,¹³⁾

8) 근자에 주격조사 ‘-ㅣ’를 ‘개사+목적어’, ‘동사+목적어’구의 휴지로 오해하여 ‘-’표시로 표기된 데를 볼 수 있다. “以一恒河沙等身命”; “於一五百世”; “見一如來不”, 白性郁 編, 『金剛般若波羅密經』(金剛經讀誦會, 1981), p. 10; 11; 9.

9) 安震湖 編, 『精選懸吐 緇門』(法輪社, 초판 1936, 이판 1981), p. 5a. 이 책은 현토문만 세로쓰기 되었다.

10) 金吞虛, 『緇門』(教林, 1982), p.28; pp. 34-35.

11) 韓定燮·鄭智徹, 『緇門警訓』(法輪社, 1988), p. 29.

12) 巨美, 『緇門警訓』(修德寺僧伽大學, 1997), p.61. 현토문은 (1-4)와 같다.

13) 안재철, 『《緇門警訓》의 문법적 이해』(한국불교출판부, 2001), pp. 69-70.

(1-6) 夫兩桂_가 垂蔭에 一華_가 現瑞하니¹⁴⁾

진호본과 탄허본은 중세 이전의 영향으로 주격조사 ‘이’가 쓰이고 있으나, 정섭본과 거부본은 주격조사 ‘이’가 등장해야 할 곳에 ‘—’, ‘—’의 약물로 표기돼 있다. 주어 모음말음 뒤 주격조사 ‘이’표기는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는 문자의 보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 이르러 주격조사 ‘이’로 표기되던 자리에 ‘이’¹⁵⁾ 또는 ‘가’로 표기하는 본(1-6)이 나타나고 있다.

‘이’가 나타날 자리에 ‘—’, ‘—’를 표시한 것은 ‘이’에 대한 몰이해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표지를 휴지의 장음으로 오해하여 ‘동사+목적어’, ‘개사+목적어’의 구조에서 휴지가 일어나는 +자리의 겹표로 인식하여 표기하는 본을 볼 수도 있다.¹⁶⁾ ‘—’과 같은 표지는 어떤 표점에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주격조사 이외의 대격(목적격), 속격(관형격), 처격, 구격, 공동격, 호격조사 등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14)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版本對校縮門』(조계종출판사, 2007), p. 36.
15) “長老須菩提이” 金知見, 『금강경』(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92), p. 27. 등, 이 본은 ‘이’가 ‘이’의 표기임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가’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16) 주격조사의 화석형이 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본으로는 白龍城, 『詳譯科解 金剛經』三版(서울:三藏譯會, 昭和12년. 대각사; 불심 도문 편, 1991.) 영인판이 있다. 이 본은 ‘須菩提 이’의 주격조사가 쓰일 자리뿐만 아니라 ‘이’를 ‘—’ 정도로 오해하여, ‘入 이 舍圍大城’, ‘與 이 大比丘衆’과 같이 동사와 목적어의 일반적인 휴지(pause) 자리에도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용현상은 ‘이’가 현재 쓰이지 않으므로 표지 정도로 오해하여 현토 인자 때 흔히 일으키는 실수라고 보인다.

2) 보조사

보조(조)사는 체언, 용언, 부사 등에 통합되어 ‘대조(차이)·역시·단독·비교·시발·도착·한계·존재·강조(강세)·유사·선택·의문’ 등의 특수한 의미를 나타낸다.

보조사의 목록은 다양하다. ‘—ㄴ(—은/은, —는/는), —도, —만, —조차, —ㄴ장, —(으/으)란, —브터, —두고, —(이)라와, —썬, —셔, —사, —곳(웃), —뵈/뵈, —곰(옴), —다비/다히, —이나(이어나), —잇든, —이라(이라서), —가/고’ 등이 있다.¹⁷⁾

위 보조사 목록은 중세국어에까지 확장했을 때는 드러나지만 ‘·, △, ㅎ’ 등의 문자가 소실된 근대 이후 현토문에는 ‘—은’은 ‘은’으로, ‘사’는 ‘사’로 나타난다.

• ‘ㄴ(은/는)’은 대조 혹은 차이를 나타내며, ‘ㄴ’이 목적어에 통합될 때는 ‘—(으)란’으로, 현대국어에는 ‘—(으)랑’으로 나타난다.

그리메_는 ㅁ렛 ㄷ를 ㄴ르시니라 (楞嚴三, 84)

餘處衆生은 無緣感佛일새 (精選懸吐縮門, 59a)

열 다숫 卷으란 가운데 壇우희 엿고 (月印釋譜二, 73)

饌食奠祀百神은 置於東壇하고 (精選懸吐縮門, 60a)

• ‘—도’는 현대어 ‘역시’의 의미를, ‘—만’과 ‘—썬’은 ‘단독’의 의미를 나타낸다.

17) 安秉禧·許頴 共著, 『國語文法論 II』(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p. 143.

有心으로도 스뭇디 묻흐며 (蒙山法語, 12)
 互有長短이라도 遞相蓋覆하고 (精選懸吐緇門, 7후)
 양지 摩耶夫人만 묻흐실씨 (釋譜詳節六, 1)
 부터쑤니 아니샤 (月印釋譜十八, 32)

- ‘-두고’와 ‘-(이)라와’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현대어 ‘-부터’와 ‘-식장’은 ‘-부터’와 ‘-까지’로 음운이 변화되었다.
- ‘셔’는 현대국어의 ‘-서’로 출발점을 나타낸다.
- 강세를 표시하는 보조사로 ‘-샤, -곳/웃, -뵈/뵈, -곰/음, -ㄱ, -ㅇ, -ㅁ’ 등이 있다. ‘-샤’는 현대국어 ‘-야’로 실현되고 있고, 주로 체언의 말씀이나 모음 또는 ‘ㄹ’ 뒤에 교체형으로 나타나지만 ‘-ㄱ, -ㅇ, -ㅁ’은 부동사 뒤에 등장하여 강세와 행위의 반복을 나타낸다.

죽골 주그며 나골 나 (楞嚴經四, 30)

- ‘-다비’(다이), ‘다히’는 현대어 ‘같이, 대로’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이나(이어나)’는 아무것이나 상관없이 ‘임의로 선택함’을 나타내며, ‘-잇든’은 계사의 활용형이 굳어져 보조조사가 되었는데 반어법의 주어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조사이다.

- ‘가’, ‘고’는 의문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모음말음 조건에서 ‘아’, ‘오’로 실현된다. ‘가’는 관정의문문에, ‘고’는 설명의문문에 등장한다. 현대어는 일부남부방언을 제외고는 ‘ㅏ/가/까’로 실현되고 있다.

我得須隨洄果아안 (金剛經上, 49a)
 何以故오 (金剛經上, 47a)
 云何奉持잇고 (金剛經上, 65b)
 何莫由斯道焉고 (精選懸吐緇門, 14전)

주격조사 ‘ㅣ’의 물이해를 제하고는 현토를 채택하고 있는 유통 치문경훈 번역본들은 재래의 현토를 그대로 수용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어미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눈다. 어말어미는 서법을, 선어말어미는 경어법, 시상법, 의도법, 감동법을 실현한다. 어말어미는 정동사, 부동사, 동명사를 이루는 어미이며, 어말어미는 서법상 ‘설명·감탄·의문·명령·청유’의 다섯 종류가 있다.¹⁸⁾

18) 임흥빈·장소원 공저, 『國語文法論』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5; 2000), pp. 141-145.

부동사어미는 흔히 연결어미라고도 하는데, 목록과 의미를 살펴보자.

‘-고’ : 행동의 전후, ‘-며’ : 동시병행

병렬 대구가 빈번히 등장하는 한문의 특성상 자주 쓰이고 있다.

註之者是 矜其音義하고 科之者是 逞其區分하며 (精選繙門, 52a)

‘-아/어’ : 선행동작의 양태

嗔心忿起하야 言語該人이라가 (精選繙門, 2b)

‘-니’, ‘-매’, ‘-늘/늘’, ‘-ㄹ썩’, ‘-관디’ : 원인

人多懈怠할새 略伸管見하야 (精選繙門, 2b)

‘-면’, ‘-든/든’, ‘-ㄴ대’, ‘-관디’ : 조건

若不彌矜이면 誠難輪道이라 (精選繙門, 2b)

若不如此인면 濫廁僧倫이라 (精選繙門, 3a)

부동사어미에 따라 문장의 맥락이 달라진다. 예문 2를 보자.

(2-1) 帝乃爲立佛寺畫壁하고 千乘萬騎로 繞塔三匝하며¹⁹⁾

원문을 보지 않고 표면상 드러난 현토 표지만으로 볼 때는 행동의 전후와 동시병행적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19) 安震湖 編, 『精選懸吐 繙門』(法輪社, 초판 1936, 이판 1981), p. 59a.

(2-2) 황제께서 이에 佛寺를 세우고 그 벽에 그림을 그리고 천승만기로
탑을 세 번 돌고²⁰⁾

(2-3) 皇帝께서 이에 佛寺를 세우기 위하여 벽에 그림을 그리고, 千乘萬
騎로 불탑을 圍繞하여 三匝하며,²¹⁾

(2-4) 황제가 이에 머지않아 부처님의 사원을 세우고 벽화를 그리려고,
1천의 수레와 1만의 기마로 탑을 감싼 채 세 번을 돌았으며,²²⁾

예문에서 사용된 부동사어미(고, 여, 며)를 분석하여 사건의 진행
을 재구성해 보자.

(2-1) 절을 짓는다,
벽에 그림을 그린다.

요탑 삼잡한다.

(2-2) (2-1)과 동일

(2-3) 벽에 그림을 그린다.

탑을 위요하여 삼잡한다.

절을 짓는다.

(2-4) 탑을 세 번 돈다,

절을 짓는다.

벽화를 그린다.

20) 韓定燮·鄭智徹, 『繙門警訓』(法輪社, 1988), p. 243.

21) 巨美, 『繙門警訓』(修德寺僧伽大學, 1997), p. 412.

22) 안재철, 『《繙門警訓》의 문법적 이해 II』(한국불교출판부, 2001), p. 224.

위 네 본 공히 한문 현토는 진호본(2-1)을 따르고 있다. 진호본과 정섭본(2-2)은 현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순차대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번역이 나왔을까. 다음 장 동사의 범주에서 고찰하겠지만 ‘爲’의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2-3)은 역자의 의도상 ‘하여(며)’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조사와 의미는 대체로 그대로 전승하고 있지만 번역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미의 문제가 아니라 동사의 지배 역(闕)에 대한 이해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범주와 분절

이 장은 동사의 지배 역과 문장(구절) 나누기에 대한 고찰이다. 마침표나 종결사와 같은 표지가 보이지 않을 때 종종 사역 조동사와 본 동사의 지배 범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 문장부사의 역할을 본문과 혼용해 번역하는 예도 왕왕 발생한다.

1. 동사의 지배 역

예문 2와 동일하지만 현토가 없는 백암성총주를 함께 보면서 상위 동사인 사역동사로 보이는 ‘爲’의 지배 역에 대해 살펴보자.

(3-1) 帝乃爲立佛寺 畫壁 千乘萬騎 繞塔三匝 又於南宮清涼臺 及高陽門

上 顯節陵所 圖佛立像 并四十二章經 緘於蘭臺石室²³⁾

(3-2) 帝乃爲立佛寺畫壁하고 千乘萬騎로 繞塔三匝하며 又於南宮清涼臺와 及高陽門上과 顯節陵所에 圖佛立像하고 并四十二章經하야 緘於蘭臺石室하니²⁴⁾

(3-3) 황제께서 이에 佛寺를 세우고 그 벽에 그림을 그리고 천승만기로 탑을 세 번 돌고 또 南宮 清涼臺(五臺山)와 및 高陽門 위와 顯節陵所에 부처님을 그리고 像을 세우고 아울러 四十二章경을 蘭臺(비밀서류를 넣어두는 곳) 石室에 봉하였다.²⁵⁾

(3-4) 皇帝께서 이에 佛寺를 세우기 위하여 벽에 그림을 그리고, 千乘萬騎로 불탑을 圍繞하여 三匝하며, 또 南宮과 清涼臺와 및 高陽門上과 顯節陵所에 불상을 그리어 세우고, 사십이장경을 아울러 난대 석실에 봉함하니,²⁶⁾

(3-5) 황제가 이에 머지않아 부처님의 사원을 세우고 벽화를 그리려고, 1천의 수레와 1만의 기마로 탑을 감싼 채 세 번을 돌았으며, 또 남궁의 清涼臺 및 高陽門 위와 顯節陵所 등에 부처님의 立像을 그리고 (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세운 뒤), 《四十二章經》과 아울러 난대의 石室에 밀봉하여 보관하였으니²⁷⁾

23) 「漢顯宗開佛化法本內傳」『韓佛全』八, p. 646下.

24) 安震湖 編, 『精選懸吐 緇門』(法輪社, 초판 1936, 이관 1981), p. 59a. 이 책은 현토문만 세로쓰기 되었다.

25) 韓定燮·鄭智徹, 『緇門警訓』(法輪社, 1988), p. 243. 이 책은 상단에는 현토문을, 하단에는 해석문을 세로쓰기 하고 있다.

26) 巨美, 『緇門警訓』(修德寺僧伽大學, 1997), p. 412. 이 책은 가로쓰기를 하고 있으므로 현토문을 제시하고 이어서 해석을 하게 되어 문단을 따로 나누고 있다. 현토문 하단에 주석을 싣고 있다.

27) 안재철, 『《緇門警訓》의 문법적 이해 II』(한국불교출판부, 2001), p. 224. 이 책도 가로쓰기로 현토문을 제시하고 이어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산선사발원문을 4단락

(3-3)은 ‘爲’의 해석을 찾을 수 없다. 아마 爲를 ‘乃’의 어조사로 이해하고 ‘乃爲’를 어조사구로 번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는 제1목적어(立佛寺)만을 취한 동사로 풀었다. 위와 같이 번역하려면 현토문이 ‘爲立佛寺하고’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토는 (3-2)를 따르고 있다.

(3-5)는 ‘爲’의 조동사 용법²⁸⁾을 활용하여 ‘머지않아 -려고’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번역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자. 번역문으로만 볼 때 (3-5)는 절을 세우거나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부동사어미 ‘으며,’나 접속사 ‘또’로 연결되고 있는 문장을 볼 때 (3-5)문장의 핵심술어는 (세 번을) ‘돌았으며’와 ‘보관하였으니’로 이해할 수 있다. 절을 세우고 벽화를 그렸다는 정보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3-5)번역자는 그 어색함을 놓치지 않고, 둘째 문장 사이에 (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세운 뒤)라고 첨가하고 있다. 이는 성총주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사는 현절능의 기사이지 입불사 관련 기사라고 볼 수 없다. 이왕 이렇게 문장을 풀려면 연결 접속사 앞으로 옮겨 “세 번을 돌았으며(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세운 뒤), 또 남궁의 淸涼臺 및 高陽門 위와 顯節陵所 등에 부처님의 立像을 그리고,”라고 처리해야 전후사가 어느 정도 정렬되지 않을까.

이에 비해 (3-3)은 불사를 세우고 그림을 그렸음을 분명히 말하고

으로 나누었으며, 현토문 하단에 주를 실고 있다.
28) 金元中 編著, 『虛辭大辭典』(현암사, 2003), p. 636.

있다. (3-5)와 달리 불사를 세우고 그림을 난 뒤에 천승만기로 요탑 삼잡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3-4)는 벽에 그림을 그렸다는 정보는 전해 주지만 절을 세웠다는 정보는 없다. (3-4)의 벽은 어디에 있는 어떤 벽인가. 불사의 벽인가, 아니면 현절능의 벽인가. 모호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다양한 번역이 나오게 되었을까. 동사 ‘爲’의 다양한 쓰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爲’는 사역동사 ‘使’의 의미가 있다. 위 기사의 전 구절을 잠시 보자.

明帝永平十三年 上夢神人 金身丈六 項有日光 寤已問諸臣下 傳毅對詔
有佛出於天竺 乃遣使往求 備獲經像 及僧二人²⁹⁾

이 기사는 얻은 경전과 불상을 보관할 장소와 승려들이 머물 절을 짓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다. 이 결과 황제는 절을 짓게 하고 벽화를 그리게 하였으며 경전을 안치했다는 대략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사역동사 ‘爲’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자.

(3-4)는 절을 짓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하여 ‘위’가 차하구(立佛寺)만 지배하고 있다.

(3-5)는 ‘절을 세우고 벽화를 그리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으므로 ‘立佛寺’와 ‘畫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을 짓고 벽에 그림을

29) 명제 영평 13년에, 주상께서 신인을 꿈꾸었다. 금빛 몸은 1장 육적인데 목에서 비추어는 듯했다. 잠에서 깨어 신하들에게 물었다. 부의가 ‘천축에 부처가 출현했다’고 물음에 답했다. 이에 황제가 사신이 가서 찾아보도록 사신을 보냈다. 승려 두 사람과 경과 불상을 얻게 되었다. 『漢顯宗開佛法本內傳』 『韓佛全』八, p. 646下.

그리기 위하여 천승만기로 탑을 세 번 돌았을까. 이 기사를 만족하려면 절을 짓기 전에 탑을 먼저 지었거나 이미 탑이 존재해야 한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의미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爲’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배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기사를 잘 더듬어 보면 황제의 명령으로 사건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절을 짓게 하고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 현실릉에 불입상(佛立像)을 그리게 하고 경전을 난대석실에 봉하게 하였음을.

그러므로 ‘爲(위)’를 사역동사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帝)가 직접 그 일들을 한 게 된다. 물론 신하들을 시켜 한 것이 다 제(帝)가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爲’의 의미를 잃고 어조사라고 이해한 (3-3)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3-4)나 (3-5)처럼 절을 짓거나 벽화를 그리기 위하여 황제가 요탑삼잡하고, 봉한 행위는 황제의 직접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역동사나 사역형 문장일 때 ‘—로 하여금, —하게 하다’의 의미를 ‘케 하리라’의 장형의 말구 토를 달고 있다.

皆得解脫케 하리라 (法華經七, 44b)

觀使自收取하시고 放我如猿鳥하야 雲山樂幽趣케 하소서 (震湖本, 36후)

전체 문장에 사역형 현토가 쉽지 않음을 이 문장은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다른 번역을 보자.

(3-6) 명제는 이내 부처님의 사원을 건립하고 1천의 수레와 1만의 기병이 탑을 둘러싸고 세 번 도는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며, 또 남궁의 청량대와 낙양성 고양문 위와 현실능에도 부처님의 입상을 그리게 하였으며, 아울러 사십이장경도 난대의 석실에 함봉하게 하였다.³⁰⁾

(3-6)은 ‘천승만기 요탑삼잡’을 벽에 그린 그림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역형 ‘爲’의 역을 연결 부사 ‘又’와 ‘并’에 착안하여 3개의 대등절에 공히 적용하고 있다. (3-6)의 현토문은 다음과 같다.

(3-6) 帝乃爲立佛寺하고 畫壁千乘萬騎가 繞塔三匝하며 又於南宮清涼臺와 及高陽門上과 顯節陵所에 圖佛立像하고 并四十二章經은 緘於蘭臺石室하니³¹⁾

한문 번역의 선결조건과도 같은 토를 새로이 다는 작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선행 현토를 크게 어긋나지 않다 보니 별다른 번역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본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듯하다.

2. 문장의 분절

고문헌으로 올라갈수록 한없이 이어지는 문장은 독자를 미궁으로 몰아넣는다. 이는 한문의 본고장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30) 일휴·우천 공역, 『역주치문경훈』(정우서적, 2008), p. 652. 이 책은 안재철(2001)과 유사한 편집 형식을 띠고 있는데 난자표와 하단 주석을 본문에 이어 편집하였다.

31) 일휴·우천(2008), p. 652.

구두점, 표호와 점호의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음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고서(古書)의 표점(標點)은 고서를 정리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과거에는 고서를 정리할 때 교감(校勘) 주석(注釋)을 가했지만 인쇄할 때 구두(句讀)를 하지 않았다. 지금은 반대로 고서를 다시 인쇄할 때 교감이나 신주(新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표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毛) 주석 주(周) 총리도 고서의 표점을 중시하여 일찍이 이십사사(二十四史)에 대한 표점작업을 직접 주도하고 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 진운(陳雲) 동지는 ~“고서를 표점·단구(斷句)하지 않으면, 설령 고문에 기초가 잘 닦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읽기 어렵다”라고 지적하였다.³²⁾

현토 또는 표점의 선행은 문장의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분석이 끝나면 그에 따라 현토(또는 표점)를 붙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의 머리와 꼬리가 뒤섞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다음 예문을 보며 논의를 진행한다.

(4-1) 廣作福慧 普利塵沙 得六種之神通 圓一生之佛果 然後不捨法界 徧入塵勞 等觀音之慈心 行普賢之願海³³⁾

32) 管敏義 지음, 서울대동양사학연구소 실 옮김, 『고급한문해석법』(창작과비평사, 2003), p. 5.

33) 「怡山然禪師發願文」, 『韓佛全』八, p. 610.

이 구절은 한국불교에서 조석으로 지송하는 ‘이산연선사발원문’이 기도 하다. 이 발원문은 2종의 가사체 번역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번역들과 아울러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4-1)은 ‘그러한 뒤에’ 정도의 시간 문장부사구로 볼 수 있는 밑줄 친 ‘然後’를 앞의 ‘佛果’와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앞의 구절을 종결하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4-2) 廣作福慧하여 普利塵沙하며 得六種之神通하고 圓一生之佛果然
後에 不捨法界하야 徧入塵勞호대 等觀音之慈心하고 行普賢之願
海하며³⁴⁾

(4-2)는 앞의 문장에 ‘然後’를 이어쓰고 ‘에’라는 토를 달았다. 이렇게 되어 앞의 구절은 뒤 구절로 이어지게 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 그러면 여타의 번역들이 이 본의 토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보자.

(4-3) 널리 복과 지혜를 지어 塵沙(무량한 중생)를 이롭게 하며 여섯가지
신통(天眼通, 天耳通, 他心通, 神足通, 宿命通, 漏盡通)을 얻고
일생보치의 불과를 원만히 성취한 後후에 法界를 버리지 않고 두
루 塵勞에 들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같이 하고 보현보살의 원을
행하여³⁵⁾

34) 安震湖 編, 『精選懸吐 緇門』(法輪社, 초판 1936, 이판 1981), p. 51a.

35) 韓定燮·鄭智徹, 『緇門警訓』(法輪社, 1988), pp. 213-214.

(4-4) 널리 福慧를 지어서 널리 塵沙를利롭게 하며, 六種의神通을 얻고, 一生의佛果를圓滿히 한 然後에 法界를 버리지 않고서, 두루 두루 塵勞에 들어가되 觀音의 慈悲한 마음과 같이 하고, 普賢의 願海를 行하며³⁶⁾

(4-5) 널리 福과 지혜를 지어서 塵沙(무량한 중생)를 널리 이롭게 하며, 여섯 가지神通을 얻고 一生의佛果를 원만히 성취한 然後에 法界를 버리지 않아 두루 세속의 괴로움(번뇌)에 들어가되 觀音菩薩의 慈悲한 마음과 같게 하고, 보현보살의 넓은 誓願을 行하며,³⁷⁾

어느 본도 예의 없이 진호본 현토를 따르고 있다. (4-5)의 번역은 진호본을 따르고 있지만 현토문은 “圓一生之佛果. 然後에”³⁸⁾라고 ‘연후’에 앞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원만히 하다’의 종결이 아닌 ‘원만히 한’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진호본의 위력은 적지 않다. 백암성총의 치문경 훈주에서 73편을 뽑아 13개의 주제별로 정리한 후 본문에 현토를 달아 출판하였으므로 후대 연구가나 번역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제 현재 시중에서 독송되고 있는 이산선사발원문을 보자.

(4-6)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³⁹⁾

(4-7) 복과 지혜 크게 닦아 온갖 중생 제도하며

신통묘용 뛰어나서 무상 佛果 이루오리⁴⁰⁾

이 두 본은 4자 4구의 가사체로 번역돼 많이 읽히고는 있지만 지나치게 의역이 돼 분석이 쉽지 않다. 개행에서 보듯이 원문의 구조와 너무 상이하다. 하여튼 (4-6)은 운허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구절의 부사격조사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비해 (4-7)은 ‘이루오리’라 하며 종결성이 드러난다.⁴¹⁾ 이 두 본은 80년대 이후의 번역본과 달리 진호본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논자는 ‘然後’ 앞의 구문은 소원 단락이고 이후 구문은 연후원⁴²⁾ 구문으로 이해한다. 이산 선사 발원문은 크게 귀의문과 참회문의 서두와, 개인적 발원의 성격을 담고 있는 소원과 제도중생의 연후원의 본원, 회향발원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然後’는 소원을 완성한 뒤의 흥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구를 전후하여 문장을 아래와 같이 분절

36) 巨美, 『緇門警訓』(修德寺僧伽大學, 1997), p. 337.
37) 안재철, 『《緇門警訓》의 문법적 이해 II』(한국불교출판부, 2001), p. 153.
38) 안재철(2001), p. 152.

39) 운허 역, 「이산해연선사발원가」, 임기중, 『불교가사원전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p.998. 묘엄 스님은 이 본의 역자에 대해, 청담과 성철 스님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운허 스님이 윤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묘엄스님 구술·윤청광 엮음, 『회색고무신』(시공사, 2002), p. 205.

40) 임기중, 위의 책, p. 1004.

41) 이 본을 임기중은 앞의 책에서 이산해연선사발원가와 해연선사발원으로 변별하여 실고 있다. 편자는 이 본이 해인사 백련암 발행 보현행원품, 백련선서간행회의 예불대참회문 등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백련암과 관련이 있거나 편자인 광덕스님의 편찬이 아닐까 하고 추측한다.

42) 발원 또는 축원문에서 마지막 법계축원이 연후원 구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4-8) 廣作福慧, 普利塵沙, 得六種之神通; 圓一生之佛果.

然後,

不捨法界, 徧入塵勞, 等觀音之慈心; 行普賢之願海.⁴³⁾

(4-8)' 복과 지혜 널리 지어 한없는 범계중생 이익 주고,

여섯 종류 신통 얻어 일생의 불과를 원만히 하오리다.

[그런 뒤에는]

범계를 버리지 않고 속진에 들어,

관음의 자비심과 같아지고 보현의 원력을 행하며,⁴⁴⁾

‘然後’ 전후구절은 사륙문으로 형식과 의미의 대구를 이루고 있다. 토를 잘못 달아 문장을 이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2)' 得六種之神通하고 圓一生之佛果하리다 然後에⁴⁵⁾

만일 ‘하리다’의 종결어미가 독송에 거북하다면 ‘하며’로 해도 전후 대구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을 분절하지 않고 ‘하고 하며,’ ‘하여 하고,’ ‘하니’로 현토를 따

43) 일휴·우천역(2008), p. 563, p. 565. 논자와 유사한 표점을 하고 있는 본으로 현진역, 『치문경훈』(시공사, 2000)은 ‘然後不捨法界,’ 문장부사를 아래 구절과 잇고 있다. 또 운허스님 역을 채용해 연후 아래 두 구를 위 단락으로 끊고 있다.

44) 일휴·우천역(2008), p. 564; 565.

45) 安震湖 編, 『精選懸吐 緇門』(法輪社, 초판 1936, 이판 1981), p. 51a.

라 이어가게 되어 문장의 층위와 단락뿐만 아니라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III. 형태와 비유

문장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철학이 사회구조의 탐색에 치중하는 학문이라면 문학은 문체를 통해 사상을 드러낸다.’는 설명을 수용한다면 문장에서 문체의 중요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고대 시문은 시가라는 특징상 운율과 압운, 대구라는 형식에 지배되고 있다. 불교 한문 문헌 가운데 경전을 제외하고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된 많은 문헌은 거의 예외가 없다. 또 형식과 함께 비유와 상징은 문체를 수식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특히 종교는 초월적 세계를 표현하게 되어 그 어떤 문장보다 상징과 비유가 동원된다.

예문을 보면서 대구와 같은 원문의 형태미와 비유나 상징과 같은 수식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으며, 현토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1. 대구의 형태미

(5-1) 十纏十使 積成有漏之因 六根六塵 妄作無邊之罪

迷淪苦海 深溺邪途 着我耽人 舉枉措直⁴⁶⁾

46) 『韓佛全』八, p. 610.

(5-2) 十纏十使로 積成有漏之因하고 六根六塵으로 妄作無邊之罪하야⁴⁷⁾

迷淪苦海하고 深溺邪途하야 着我耽人하며 舉枉措直하난

(5-2)의 현토는 대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앞의 부동사어미에서 보았듯이 대구의 부동사어미는 ‘-하고’ ‘-하며(다)’로 정리되고 있다. 위 현토에서는 ‘舉枉措直하난’이라 하여 제시한 구문이 이하 구절을 수식하는 종속절에 머물게 된다. 번역본들을 보자.

(5-3) 十纏 十使로 有漏의 因을 쌓고, 六根 六塵으로 망령스리 가없는

죄를 지어 어리석게 고해에 뺏고 깊이 그릇된 길에 빠져, 바른 길을 버리고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른 길만 찾아다녀,⁴⁸⁾

(5-4) 十纏과 十使로 有漏의 그 業因을 쌓아 이루고, 六根과 六塵으로

망령되어 無邊의 罪業을 지어선, 迷하여 苦海에 빠지고 깊이 邪途에 빠져서, 나를 執着하고 남을 耽하며, 굽은 것을 들고 곧은 것을 버리는,⁴⁹⁾

(5-5) 十纏과 十使로 有漏의 그 業因을 쌓아 이루고, 六根과 六塵으로

망령되게 한량없는 罪를 지어, 苦海에 미혹되게 빠져 들고, 샅된 길에 깊이 빠져, 나에게 집착하고 남을 즐기며, 굽은 것을 들어 곧은 것에 두었으니⁵⁰⁾

47) 『精選懺吐綱門』, p. 50a.

48) 한정섭(1988), p. 212.

49) 거부(1998), pp. 354-355.

50) 안재철(2001), pp. 148-149.

제시된 세 번역은 (5-2)현토문의 현토를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현토 이전의 원문에 표점을 가한 모습을 살펴보자.

(5-6) 十纏十使, 積成有漏之因; 六根六塵, 妄作無邊之罪.

迷淪苦海, 深溺邪途, 着我耽人, 舉枉措直.⁵¹⁾

(5-6)은 논자의 견해와 일치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구조를 잘 보여 주는 표점을 하고 있지만 번역은 의역된 운허 본을 제시하여 번역에서 대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없다.

(5-6)은 46체의 병렬의 대가 확연히 드러난다. 십전십사와 육근육진, 유루지인과 무변지죄, 적성과 망작. 설명이 필요할까. 수사와 수사의 대응, 체와 용의 대, 부사(쌓여, 망령되이)와 동사(이루다, 짓다)의 대비가 보여 주는 문체미를 살릴 수 있을까. 운허 역본을 잠시 보자.

심술긋고 욕심 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광질광 생사 고해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른 길만 찾아다녀⁵²⁾

51) 현진(2000), p. 512. 이 본은 ‘로 문장의 종결을 나타냈다.

52) 현진(2000), p. 513. 가사체 표기를 할 때 거개의 유통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 본을 비롯하여 근자에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조계종 『통일법요집』을 비롯하여 일부 본에는 음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각행 234구의 세로 정렬을 하고 있다.

운허 역은 창작에 가까운 의역이지만 ‘심술 꾀고 욕심 내어’와 ‘보고 듣고 맛봄으로’나 ‘온갖 번뇌 쌓았으며’와 ‘한량없는 죄를 지어’ 등 대구가 잘 어울리고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5-3, 4, 5)와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본을 보자.

(5-7) 열 가지 엽매임과 번뇌로 무상한 인연을 쌓았고;

6근과 6진으로 가없는 죄를 망령스레 지었으며,

고해의 그릇된 길에 깊숙이 빠져,

나와 남을 집착하고 굶은 것을 끝은 것이라 억지 부렸습니다.⁵³⁾

(5-7)은 뜻과 대구를 살려 번역하려고 하고 있지만 음보와 음절수가 합송에 적합지 못한 단점이 있다.

사륙문이든 시경체이든 절구나 율시이든 원문이 율문이라고 해서 번역에 외재율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구조미를 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⁵⁴⁾

2. 후치 수식의 한계

한문 수식 문체를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후치 수식구절

53) 일휴·우천(2008), p. 558.

54) 논자는 현재 의식용 경전과 계송을 번역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의 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회에 동참하고 있는데, 한 자 한 자에 다양한 뜻과 교학과 역사가 담긴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 한자뿐만 아니라 우리말 각 어휘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상 차이 등이 다양하여 번역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합송용이라 외재율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어든 주어든 관계사가 없이 선행 수식하는 우리말과 달리 한문은 영어와 같은 형태의 목적어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문을 보자.

(6-1) 時有沙門迦葉摩騰과 竺法蘭하니 位行이 難測이요 志存開化하
니라⁵⁵⁾

(6-2) 時有沙門迦葉摩騰·竺法蘭, 位行難測, 志存開化.⁵⁶⁾

(6-3) 그때 스님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있었는데 言行이 헤아리기 어렵
고 뜻이 開化(불법을 개시하여 중생을 교화함)에 있었다.⁵⁷⁾

(6-4) 때에 沙門 迦葉摩騰과 竺法蘭이 있었으니, 位와 行이 측량하기 어
려움이요, 뜻은 開化에 있었다 하니라.⁵⁸⁾

(6-5) “이때 사문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있었으니 처신과 행위에는 예측
하기 어려웠으며 뜻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 두고 있었다.⁵⁹⁾

위 예문에서 ‘位行難測, 志存開化’는 가섭마등과 축법란의 위와 뜻을 설명하는 구절이므로, ‘처신과 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뜻을 두고 있는 사문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있었다.’⁶⁰⁾ 정도의 선행수식으로 번역해도 될 텐데 제 본은 순차번역을

55) 안진호(1936), p. 59a.

56) 현진(2000), p. 588.

57) 한정섭(1998), pp. 243-244.

58) 거부(1998), p. 412.

59) 현진(2000), p. 589.

60) 이 문장이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문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있었다. (수행 계)위와 행이 헤아리기 어려웠고 뜻은 (중생의 무명을) 열어젖혀 교화하는 데 두었다.” 라고 문장을 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일휴·우천(2008), p. 558.

충실히 따라 경제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음절과 음보까지 감안하는 번역은 어렵다. 어떤 번역이 훌륭하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다만 원전의 문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는 계속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3. 비유의 세계

비유가 없는 문장은 없다. 인간과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 자체는 일차 사물의 이름값을 제공하는 순간 그 본래 기능보다 추상적 이미지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유식무경(唯識無境)이라고 하는 유식의 명제는 유의미하다. 사실 지금까지 다룬 예문 모두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미에서 살펴본 대구의 십전십사는 잘못된 인식의 세계를 설명하는 불교의 방법일 뿐이다.

고찰하고 있는 치문경훈에는 직유와 은유가 고르게 쓰이고 있다. 직유에는 如, 若이 형식상 구를 이끌지만 은유는 의미상으로 드러난다. 누차 거론한 이산선사발원문은 거의 모든 문장이 직유라 할 수 있다.

如稻麻竹葦하니 (精選緇門, 35b)

如稻麻竹葦와 같으니 (한정섭, 151)

如·稻·麻·竹·葦와 같다 하니 (巨芙, 260)

마치 뽕뽕이 들어찬 벚단이나 대나무숯처럼 많았습니다. (현진, 377)

마치 벼·삼·대·갈대와 같이 많으니 (안재철 I, 390)

마치 벼나 삼이나 대와 갈대와 같으니 (일휴·우천, 388)

이 구절의 주어부는 ‘悟此法者’이다. 이 법을 깨달은 자가 ‘~와 같다’ ‘~와 같이 많다’의 두 유형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진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본은 안진호 원토문을 따르고 있다.

현진과 안재철은 제시한 예문을 부사구로 이해한 번역이라고 이해되고 한정섭과 일휴·우천은 수식의 형용사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표면상 원문에 ‘많다’는 의미의 원문이 없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많다고 설명하므로 비유의 의미는 축소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은유의 번역을 보자. 이 구절은 앞의 ‘達磨西來, 不立文字, 直傳心印: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심인을 직전하니’의 원인의 절을 받는다.

一花五葉이라 (精選緇門, 35b)

한 꽃에 다섯 잎이 되었습니다. (한정섭, 151)

一花五葉인 됴이라 (巨芙, 260)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되었으며, (현진, 377)

한 송이 꽃이 다섯 잎이 되니라. (안재철 I, 390)

한 꽃은 다섯 잎으로 벌었습니다. (일휴·우천, 388)

다섯 번역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대우법의 차이와 ‘一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조사가 다르다. 먼저 대우법에 대해 보자. 3본은 경어체로, 거부는 하대와 경어체가 섞여 있고 안재철은 하대체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한 꽃에 다섯 잎이’와 ‘한 꽃이 다섯 잎이’는 차이가 없을까. ‘한 꽃이 다섯 잎이 되었다’는 ‘한 꽃에 다섯 잎이 생겼다’로 읽히는가. ‘한 꽃에 다섯 잎이 되면’ 꽃과 잎이 동시에 존재하고, ‘한 꽃이 다섯 잎이 되면’ 꽃과 잎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꽃과 잎이 둘이 아닌 선법, 선종 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라 한다면 꽃이 잎이고 잎이 꽃이 되어 ‘한 꽃잎에서 다섯 꽃잎이 나왔다’로 읽혀질 수도 있다.

‘은’ 보조사를 택한 ‘한 꽃은 다섯 잎으로 별었다’는 것도 한 꽃이 다섯 잎이 되었다는 것과 유사한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읽을 수 있다.

결국 꽃과 잎이 둘이 아닌 의미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하나에서 다섯이 나왔다는 선종 발전사로 읽혀지게 된다.

이 본 현토는 진호본 현토를 따라 ‘-이라’를 택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현대의 명사문 또는 형용사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므로 비유를 직유로 풀면 설명이 되어 문장 미가 감소하므로 가능하면 은유와 상징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결어: 전승과 극복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작업은 지난하다.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긴 여정을 요구한다. 한문 불교서적으로 불교를 이해해 온 우리들은 그 과정에 필요한 도구로 현토를 개발했다. 현토는 우리와 어

순이 다른 언어인 한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⁶¹⁾

한 글자가 위치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속성을 나타내며, 또 띄어쓰기조차 하지 않은 고전 한문을 이해하는 도구인 현토. 지금까지 그것과 그것으로 인해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번역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체로 주격조사 ‘이’를 장음의 휴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재래의 현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둘째, 구절을 무비관적으로 수용하여 조건구절과 대등구절, 동사의 지배 범주 등이 잘 구별되지 않았고, 분절할 문장을 끊지 않고 잇게 되어 문장 층위와 단락이 모호하여 의미의 차이 역시 적지 않았다.

셋째, 한문과 우리말의 차이에서 연유하지만 대구와 후치 수식 등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유와 은유를 설명식으로 번역하여 문체 미가 저감되었으며, 안긴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경제적이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선행의 업적인 현토의 장점을 살려 수용하고⁶²⁾ 참고는

61) 현토는 단순히 번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토를 단 경전을 읽으며 수행해온 전통이 남아 있다. 가령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이라고도 독송하지만 ‘如是我聞하사오니 一時에 佛이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하사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과’로 독송해 왔던 것이다.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가에도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하니’로 현토를 넣어 읽어 왔다. 이는 현토가 원전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전 독서법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 글은 이 점에 대해 따로 탐구하지는 않았다. 부연하지 않아도 현토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탐색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낭)송의 현토 원칙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역문이나 인용문의 현토는 사역동사나 인용동사 지배 역 밖에 ‘하라 하시니라.’ ‘케 하나니라’ 등 장형으로 존치함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62) 구절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므로 전승하더라도, 우리 문장의 형태를 존중해 용언에서 동사와 형용사 토를 달리하여, 명사문과 형용사문은 ‘이다’ 토를, 동사문은 ‘-하다’ 토

할지라도, 현토문에서 토를 삭제한 후 (白文) 문장을 분석하여 대구와 후치 수식이 잘 드러나는 표점을 한 후⁶³⁾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대 조사 학습의 결정체이자 자산인 수많은 현토,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번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운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된다.



를 달면서 대구가 드러나도 '하고 하며; 하고 하니'와 같은 정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인용문은 인용동사에 '-하되' '-(이)라'의 종결성어미를 달아 구별하면 토와 함께 독송할 때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다'나 '-이다' 토를 달 경우도 체언말음 이 없을 때는 어간을 이루는 '하나 매개모음 '이'를 과감히 생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3) 이 과정을 거친 본으로 현진이 옮긴 『치문경훈』이 유일하다.

참고문헌

—원전

- 「怡山然禪師發願文」, 『韓佛全』八,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 「漢顯宗開佛化法本內傳」, 『韓佛全』八, 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단행본

- 巨英, 『緇門警訓』, 修德寺僧伽大學, 1997.
- 金吞虛, 『緇門』, 教林, 1982.
- 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版本對校緇門』, 조계종출판사, 2007.
- 安震湖 編, 『精選懸吐 緇門』,法輪社, 초판 1936; 이판 1981.
- 운허 역, 「이산혜연선사발원가」, 임기중, 『불교가사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 일휴·우친 공역, 『역주치문경훈』, 정우서적, 2008.
- 韓定燮·鄭智徹, 『緇門警訓』,法輪社, 1988.
- 현진역, 『치문경훈』, 시공사, 2000.
- 李基文·張素媛 共著, 『國語史』,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 安秉禧,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1977.
- 安秉禧·許頰 共著, 『國語文法論 I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 金元中 編著, 『虛辭大辭典』, 현암사, 2003.
- 管敏義 지음, 서울대동양사학연구실 옮김, 『고급한문해석법』, 창작과비평사, 2003.

—논문

- 김무봉, 「언해본 금강경과 한글번역」, 『〈금강경〉 한글본 편찬,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7.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hiMun Hyeonto(Classical Chinese Phrases) and Translation

Lee, Sung-woon
Dongguk University

K C I

This paper establishes a desirable translation mechanism for Buddhist scriptures contemplating the action of Toe(in this paper Kukyol and Toe are used interchangeably as the meaning of the former is similar to the latter) on th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The correlation between Hyeonto and translation will be analyzed focusing on ‘Category and Segment’ and ‘Format and Metaphor’ in investigating my translation of Chimungyeonghun, amongst other Buddhist scriptures(of which learners are monks at the initial stage of training). Chapter I presents post position and conjugation ending words that appear in translated versions published of Chimungyeonghun and Gangyeongdogam. The implication of Hyeonto on the governing scope of the verb, complement structure, and concord of the main predicate is studied in Chapter II that discovers that not only the meaning and

the role of verbs are ambiguous as many of the scriptures accommodate the precedent Hyeonto as it is; in addition, the lengthened sentences lower legibility. Chapter III investigates the impact of Hyeonto on an antithesis, the style of metaphor and this reveals that the style of original ones are distorted and it is uneconomical that post-modification were adequately translated into Chinese. Hyeonto helps in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exposes an obstacle for translation of itself. I may be better to translate the Buddhist scriptures after marking which well expresses post-modification and antithesis analyzing Baekmoon(白文: unpunctuated Chinese composition) after deleting Hyeonto although; however, the value of Hyeonto(a precedent achievement) cannot be neglected.

Key Words

Eonhae(Korean translation of classical Chinese phrases),

hyeonto(Classical Chinese phrase), post position,

conjugation ending words, sound shift, category, metaphor

투고일자 2010.11.5 | 심사일자 2010.12.1 | 게재확정일자 2010.12.8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 I. 머리말
- II. 初彫대장경과 대장경 문화
- III. 再彫대장경의 계승성과 독자성
- IV. 재조대장경의 ‘外藏’
- V. 맺음말